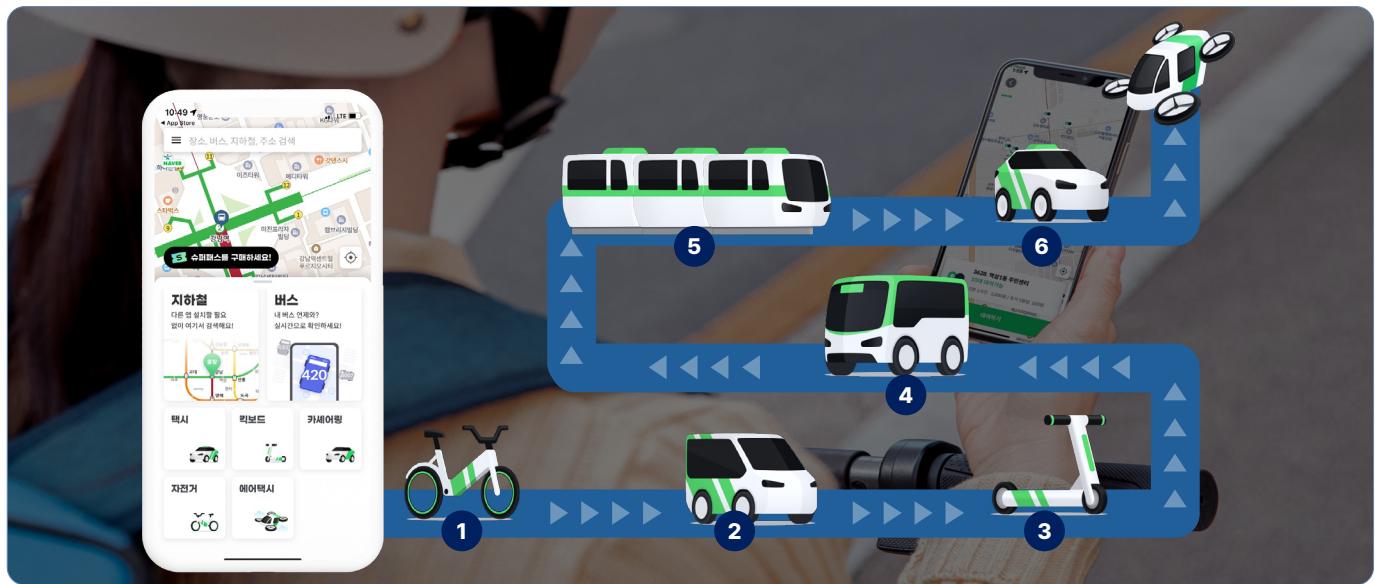


통합 모빌리티(MaaS) 플랫폼

통합 모빌리티(MaaS)는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검색하여 최적경로 안내, 예약·결제 등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이다.

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은 점차 다양해지는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여러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.



▲ 시민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앱에서 목적지까지 이용 가능한 다양한 교통 수단을 한번에 검색하고 있다.

해결과제

- ▣ 광역교통, 대중교통, 공유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를 개별 공급자가 제공하는 각각의 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개 이상의 운송수단 이용이 불편
- ▣ 교통상황에 따른 여러 운송수단 검토와 비교가 어려워 최적 이동 효율적 활용 한계
- ▣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포함한 연계성 강화와 목적지별 교통상황에 따른 최적 교통수단별 환승 할인 등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 필요

기대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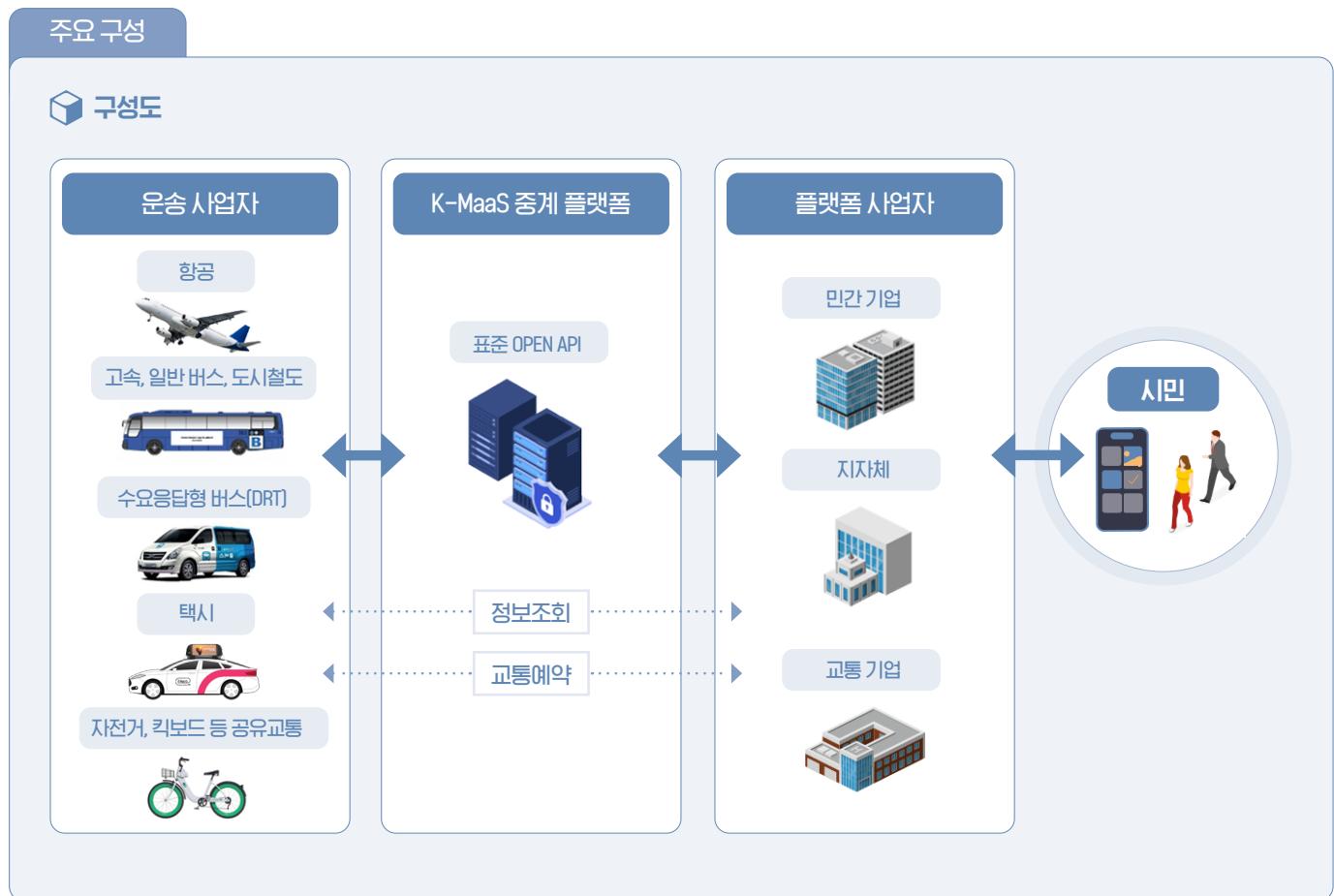
- ▣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교통 수단 예약이 가능하고,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시 최적 시간 및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성 증가
- ▣ 다양한 운송 수단간 연결성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향상

💡 주요 서비스

-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 까지 비행기, 기차, 버스, 지하철, 렌터카 등 다양한 교통수단 별 소요시간, 비용을 포함한 복합 교통수단 추천
- 하나의 스마트폰 앱에서 택시, 자전거, 전동킥보드, 쿠서비스, 렌터카,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 예약 및 호출
- 택시 및 쿠서비스 예약 시 사용자의 위치와 연락처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
- 택시 및 기타 교통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 평점 시스템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

▣ 도입 사례

- 현대자동차는 2023년 인공지능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'셔틀'을 MaaS 플랫폼(똑타)으로 전환하고 경기도교통공사와 협업하여 안산시 대부분을 시작으로 전국 확산 진행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중계 플랫폼사업자(한국도로공사)가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·중계하고,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K-MaaS 서비스 개시
-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6월 열차, 렌터카, 짐배송 등 여행 교통서비스를 묶은 '코레일 MaaS'를 시작 100일만에 누적 접속자 293만건으로 확대 추세(월 평균 142% 증가)



주요 기술

1. 최적 교통수단 조합 및 경로 생성

- 출발지-도착지를 선택하면 대중교통, 공유 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조합하여 구간별 최적 교통 서비스 생성 및 추천

POINT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 경로와 교통수단 추천

2. 이용 대상 모빌리티 서비스 예약

- 이용자가 선택한 교통수단에서 예약 과정을 간소화하여 좌석 선택, 맞춤형 경로 추천, 결제를 한 번에 처리

3.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제공

- 가장 빠른 지하철 경로 검색, 실시간 버스 위치 검색, 가장 가까운 정류장, 지하철역 검색 서비스 등 제공

4. 오픈 MaaS API 제공

-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 데이터 조회 및 예약을 중계하기 위한 표준 Open API 서비스 제공

5.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 간 연계

- 항공, 기차, 버스, 지하철, DRT, PM 등 대중교통, 공유모빌리티와 택시, 렌터카, 전세버스 사업자 등 연계

기술기업

슈퍼모브
www.supermove.co.kr

에스트래픽
www.straffic.co.kr

카카오모빌리티
www.kakaomobility.com

LG CNS
www.lgcns.com

